

허공에는 발자취가 없고 사  
문에게는 다른 뜻이 없다. 만  
들어진 것은 항상 머물지 않으나, 깨달은 자에  
게는 흔들림이 없다  
(法句經·진구품 255절)

창간일	1955.10.15
발행처	경북 경주시 동대문로1가 111
전화	780-714
팩스	780-714
인쇄	경북 경주시 동대문로1가 111
발행인	이영환
편집인	이영환
주최	동국대학교
주관	동국대학교
발행부	동국대학교

## 제26대 총학 박현식·고정환 조 당선

### 학부위문제 합리적 해결로 학생회 신뢰 회복해야

제26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변화와 개혁의 21세기, 진보시대를 개척하라! 청년동학이여!'라는 슬로건으로 출마한 박현식(정치·경제·행정)과 고정환(언어·문화·체육)은 11월 11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각각 54.8%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관련인터뷰 7면)

총유권자 8천7백40명 중 5천3백13명이 투표에 참가해 607%의 투표율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 기호1번 류·박조는 2천2백83표를 득표했다.

지난 11일 오후 11시부터 다향관(2층 교직원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관인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 선거구별로 진행된 개표에서 1지역(법과대, 사회과학대, 경상대, 농과대, 예술대 미술학과)의 개표결과 기호1번 류·박조가 6백30표를 득표하고 기호2번 박·고조가 9백53표를 득표했다.

2지역(불교대, 문과대, 이과대, 예술대 연영과)개표에서 기호2번 박·고조는 5백53표를 득표한 반면 기호1번 류·박조는 6백34표를 득표했다.

기호2번 고·박조가 가장 높

은 지지(64.7%)를 받았던 3지역(공과대, 사범대) 개표에서는 기호2번 박·고조는 1천2백41표를 득표했으나 기호1번 류·박조는 6백44표를 득표했으며 4지역(언어·문화·체육) 개표에서는 기호1번 류·박조가 3백75표를 득표했다.

이런 선거결과 무효표는 총 1백17표로 집계됐으며 오차율은 0%였다.

60.7%의 투표율, 54.8%의 지지율, 0%의 오차율, 이것이 제26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의 결과로 드러나는 결과이다.

비록 지난해 55.2%의 투표율보다 약간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지만 4천여명의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76%의 지지로 출발한 제26대 총학생회는 훨씬 많은 부담을 안고 출발해야한다.

특히 학생회에 대한 불신감 조성으로 다가왔던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문제의 해결과 동국중흥 한미당, 등록금 합

의서 이행 등 올해 학원자주화 투쟁(이하 학자투)의 성과와 과제를 이어가야 하는 문제가 제26대 총학생회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복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의 선거공약으로 위원장 직선제, 학복위 인우위원회 구성, 공동관리위원회 신설 등의 해결 방안이 제출된 바 있다.

이러한 방안들 중에서 학복위 인우위원회의 경우 현 학복위 집행부 전원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학복위의 모든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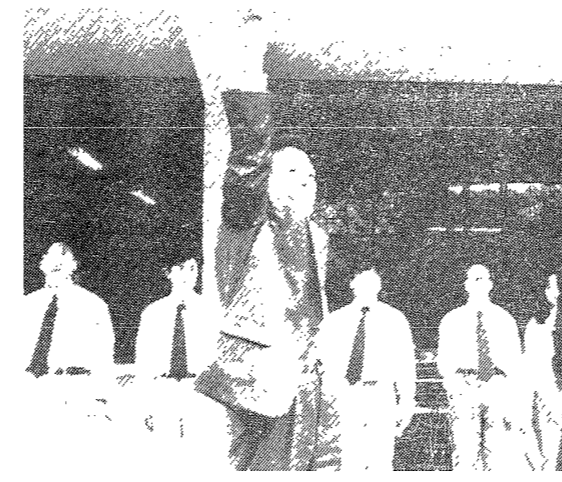
위원장 직선제 또한 학생회칙 개정이라는 부면이 걸려 있어 내년 3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위원장의 공석기간이 4개월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학복위의 내년 상반기 사업까지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함께 올해 학자투의 성과와 과제를 이어가야 하는 문제가 제26대 총학생회의 과제로 남아 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예년의 모습에 비해 학생회 사업의 단절로 인해 무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성중 기자)



◇ 지난 11일 마무리된 제26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서 박현식·고정환 조가 6백30표차로 당선됐다.

## 동국학술문화관 12월 착공예정

### 지상3·지하2층 5천2백여평 건축

동국학술문화관 건축공사가 12월 24일경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창순 관리처장은 동국학술문화관 건립의 진척정도에 대해 현재 경관심의, 미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이 끝난 상태이며 앞으로 건축계획심의, 에너지심

의, 활도심의 등 3~4개 정도의 심의가 끝나면 12월 초 최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당초 지상 5층 지하 2층 총 5천3백여평으로 설계됐던 동국학술문화관은 남산지역 고도 12m 제한으로 인해 지상 3층 지하 2층 총 5천2백50평으로 조정돼 지금까지 심의과정이 진행되었다.

한편 동국학술문화관이 올 12월 착공될 경우 미술학과와 강의 공간 문제로 다시한편 학교당과 미술학과 학생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관리처장은 "가건물 설치를 구상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동국학술문화관 건축허가 나올 경우 가건물에 대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건물의 위치는 명진관 옆 테니스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백주년 기념사업 후원회 발족

### 모금활동 활발히 진행될듯

개교 1백주년기념사업 후원회가 공식 결성되어 사업 기금 마련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총동맹회(회장=황명수·경희 53졸)회장단과 운영·지도위원들이 1백여명이 참석한 지난 4일 열

린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위치문과 회칙, 사업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후원회 회장에 황명수 총동맹회장을 선임하고 1천여명의 지도·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10대 업무분장이 주축이 되어 동국학술문화관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에 결성된 후원회는 개교 1백주년기념사업의 주요사업인 동국학술문화관실업, 불교영원기념사업의 사업 기금모금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본회의 사무국을 두고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한다.

이로써 현재까지 합법적인 후원회가 결성되지 않아 미진했던 기금모금활동이 보다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출판부 '회계학 연습'편집

출판부(부장=김용철)는 지난 12일 회계학연습(김영철)의 편집에 들어갔다.

이 책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행정 고시 등 회계학 분야의 각종 시험 준비를 위한 것으로 상·하권으로 나누어 상권은 문제위주로 하권은 문제해설 및 정답풀이로 구성된다.

## 보리수

언어에 관한 일본사람들의 특기 가운데 하나는 기발한 조어(造語)와 축어(縮語) 기술이다. 그들은 무슨 말든 일본식으로 줄여서 쓰거나 변형해 쓰기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 말서 '가라오케나 비루'같은 말만 보아도 그렇다.

무인반주기(無人伴奏器)를 뜻하는 가라오케는 '가라(空)'라는 일본 말에 오케스트라의 앞말을 따서 만든 전형적인 일본식 조어다. 이에 비해 '비루'는 일본식 축어의 대표적인 사례다. 비루는 일찍 들으면 맥주(Beer)를 의미하는 일본식 발음 같지만 사실은 빌딩(Building)을 줄인 축어다. 동경에 있는 '선사인 비루'는 선사인표 맥주라 아니라 선사인 빌딩을 가리킨다.

이런 식의 축어, 조어는 한문으로 된 불교용어에도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석존(釋尊)'이란 말이다. 석존은 일본의 불교학자들이 석가세존(釋迦世尊)의 앞뒤 글자 한자씩을 따다가 만든 신조어다. 그들은 부처님의 생애를 서술한 전기들을 써놓은 '신석존전(新釋尊傳)'이라는 제목을 붙인다. 학자들의 논문을 보아도 부처님을 지칭할 때는 한결같이 석존으로 표기한다.

기분나쁜 것은 이같은 일본식 불교용어가 일본불교의 모국(母國)을 지칭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무 여과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불교인들이 쓴 논문을 읽다 보면 부처님을 지칭하는 용어를 일본식 조어표기법인 석존이란 말로 표기하고 있는 예가 허다하게 발견된다. 그

러다보니 학생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모르게 석존이란 말을 우리말로 쓰게 되고 있다.

일본식 불교용어 가운데 우리가 수입해 쓰고 있는 또 다른 것으로는 포교(布教)란 말이다. 이 말은 이제 너무 보편화되어 우리나라 불교가 옛날부터 써오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불교사전을 보면 중국 천태대사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옛날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포교란 말보다 전법(轉法) 또는 홍법(弘法)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했다.

부처님을 석존이라고 부르는 불교의 전법활동을 포교라고 하는 것이 부어그리 대수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또 문화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므로 오늘날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말이란 의식의 표현이고 말을 지배당하면 의식을 지배당한다. 우리나라에 귀중한 말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써야 할 판에 있는 말조차 버리고 일본풍을 좇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실이다. 더우기 일본의 불교문화 원류가 한국이라는 불교문화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식 불교용어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洪恩誠

## 일본식 불교용어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옛날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포교란 말보다 전법(轉法) 또는 홍법(弘法)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했다.

부처님을 석존이라고 부르는 불교의 전법활동을 포교라고 하는 것이 부어그리 대수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또 문화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므로 오늘날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말이란 의식의 표현이고 말을 지배당하면 의식을 지배당한다. 우리나라에 귀중한 말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써야 할 판에 있는 말조차 버리고 일본풍을 좇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실이다. 더우기 일본의 불교문화 원류가 한국이라는 불교문화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식 불교용어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洪恩誠

## 경주 총학선거 3개조 입후보 오는 24·25일 투표로 마무리

경주캠퍼스 제11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기호1번 류재성(조경3)·배인호(경영3)조, 기호2번 이혁승(회계4)·박형규(철3)조, 기호3번 박상만(경영3)·박종태(국문3)조가 입후보했다. (관련인터뷰 5, 7면)

지난 12일 후보등록이 마감된 11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15일 공보부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통의정=이종철·야간별 4 정순현·경영4)는 12일 오후 6시 30분 후보자 1차 미팅을 갖고, 세차례로 예정된 유세를 두차례로 단축 조정했다.

총선위촉은 이날 기호 3번측이 건의한 자료집과 유인물의 규격과 페이지제한 완화문제는 지난 15일 2차 미팅에서 자료집은 종전 16월, 20페이지 이하에서 16월 40페이지 이하로 규격제한이 있었던 유인물은 8월지에서 규격제한을 두지 않기로 발표했다.

이밖에 변경된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17일 1차유세(목요일) △23일 2차 및 야간유세(목요일

및 진흥관세미나실) △24일 서울 부채자무표 및 야간투표 △25일 주간투표 및 야간투표 투표 개표.

한편 제10대 총학생회는 지난 12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윤영(회계3)·정정인(불어3)조가 단독입후보 해 총학생회선거의 동일한 일정에 들어갔다.

부 및 접수를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계산고시학과 2층 사무실에서 받는다.

시험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세분야로 나눠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사법고시:1학년은 민총, 2·3학년은 민법, 행정, 경제학이고 공통으로 외국어, 헌법, 문화사, 국사 △행정고시:1·2·3학년 공통으로 영어, 헌법, 국사 2·3학년은 민총, 정보과학을 추가 △사법고시:1·2·3학년 영어, 국사, 문화사 공통 2·3학년 헌법, 정치학 추가.

총선발인원은 60명으로 재학생이면 누구나 응시가능하다.

경주 캠퍼스 교무과(과장=오복용)는 9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지난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5일간 받는다.

예년보다 2일 더 기간을 늘린 이번 수강신청은 강의시간표를 2인당 1권씩 교부했으며 강의계획서는 각 학과당 6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수강신청에 대해 교무

## 경주 수강신청 19일까지

경주 캠퍼스 교무과(과장=오복용)는 9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지난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5일간 받는다.

예년보다 2일 더 기간을 늘린 이번 수강신청은 강의시간표를 2인당 1권씩 교부했으며 강의계획서는 각 학과당 6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수강신청에 대해 교무

과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기간내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음으로 인해 폐강경정, 출석부 미등록 등으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과 강의실 조정, 인원과 다수의 분반등의 행정상 차질이 우려되며 정해진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주캠퍼스 교무과(과장=오복용)는 9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지난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5일간 받는다.

예년보다 2일 더 기간을 늘린 이번 수강신청은 강의시간표를 2인당 1권씩 교부했으며 강의계획서는 각 학과당 6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수강신청에 대해 교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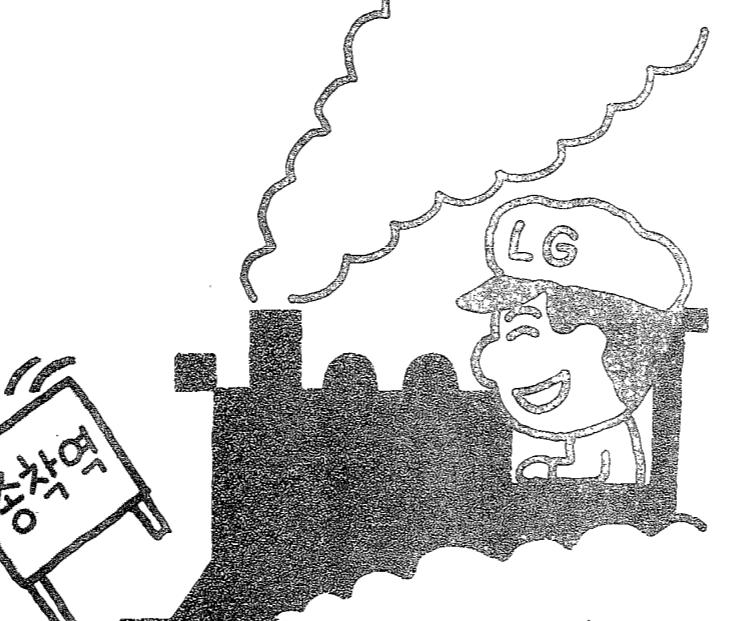
△이종철(국문학)=회계학기본 논문발행일은 오는 19일 오후 5시30분 다량관 교수식당에서 가질 예정.

△신승태(일문학)=국어생성 과정과 어원에 대한 실명을 담은 '세미있는 어원어미'(서양학술사 발행)출간

## 럭키금성의 실체변혁

혁신에는 종착역이 없다.

경영혁신은 세계 제일이라는 높은 목표를 향해 끝없이 매진하는 종착역이 없는 여정이다.



## “종착역이 없는 여정”

레너 회장의 자신감

작년 4월 럭키금성의 제1차 실적보고회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한대행사를 방문하여 레너 회장과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었다. 지난 걸프전에서 다국적군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시 항공이었다. 한니켈사는 바로 그 항공기들의 눈부신 활약을 가능하게 한 첨단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이다. 한니켈사의 레너 회장은 이 분야에서 일본보다 몇십 년은 앞서 있으며, 앞으로 일본은 자기들을 따라올 수 없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한니켈사의 세계 제일을 위한 결단

한니켈사는 지난 1980년 이전까지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시작된 항공기 부품 제조업이었다. 당시에도 강요한 바 있지만, 항공산업이 소외되는 열광한 연구개발 비용과 위험부담을 감내해 이 세계적 우량기업인 한니켈사조차 모든 사업을 다 걸칠 수는 없다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한니켈사는 '86년부터 경영혁신을 시작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우리는 세계 제일'이 될 수 있는 사업만을 한다'는 아주 간단하고도 명쾌한 비전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한니켈사의 입장에서 컴퓨터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항공기 부품 제조업은 결코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특히 컴퓨터부문은 시장의 규모면에서나 뛰어난 범용성을 고려할 때 높은 잠재성을 가진 사업이었다. 마침내 한니켈사는 방정환 단장에 의해 컴퓨터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유망이 걸림의 발발방안은 제1차 세계대전을 더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이리하여 한니켈사는 프랑스의 '불(BULL)'이라는 회사에 컴퓨터 사업을 매각하고, 대신 상업용 항공기 제어 사업을 인수하여, 방정환, 방정환, 항공기 제어 등 제1차 세계대전의 경영자원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한니켈사는 경영혁신을 시작한지 5년이 지난 지금 이 분야에서 세계 제일이 되었다.

경영혁신은 세계적 추세

작년 한니켈사 뿐만 아니라, AT & T, 벨, EDS 등은 비롯하여 마쓰다, NEC 등 소위 세계 우량기업들은 현재의 교수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21세기를 대비해 철저한 경영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인재가 경영의 주무기로 생각하고, 그 인재들을 통해 철저한 고객 만족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것도, 흔히 우리 기업들이 흔히 따라다니다 구호 및 회자되고는 호자부지 끝내 버리는 운동이 아니다. 최고 경영자인 회장의 지휘하에 그들이 과거에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자랑하던 사업과도 손을 떼고 있었다. 앞에서 많은 인원의 과감한 감축을 통해 새로운 기업체 유지하려고 애쓰는 등 고령의 만주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 희생까지 치르고 있다.

종착역이 없는 경영혁신의 여정

그에서 비롯, 그들보다는 좀 늦었지만, 국내 최초로 '21세기를 향한 경영혁신'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혁신 작업을 서두른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외로 하는 승한 기업들이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따라오는 인원의 정예화와 부채를 극대화하고 있다고도 우려되는 경우도 많다. 경영혁신을 하면서 '어기까지 끝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끝일지 한계가 되고 만다. 경영혁신은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지향하여 추구해야 하는 '종착역이 없는 여정'인 것이다.

수자정화정 저(오직 이 길밖에 없다) 중에서

럭키금성의 경영

럭키금성의 경영

럭키금성의 실체변혁

혁신에는 종착역이 없다.

경영혁신은 세계 제일이라는 높은 목표를 향해 끝없이 매진하는 종착역이 없는 여정이다.

럭키금성의 경영

### ◇ 행정학과 고시방 마련을 보며 학과 발전계획의 산물

사회모든 분야에 있어서 혁신과 발전을 통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앞으로는 대학에 있어서도 자기민족의 단일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학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교육부에 의해 학과 평가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제 곧 대학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것은 곧 학과발전과 학교의 발전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궤를 같이한다는 뜻이다. 이에사회계열인 행정학과(학과장= 심익섭 교수)에서는 경쟁에 대비한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미 행정학과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금번 행정학과에서는 졸업논문 중심의 '고시 준비 후배를 위한 책상하나 사주기 사업'을 비롯으로 본교



◇ 지난 12일 임박식을 가진 행선재실은 30개의 좌석과 고시서적을 갖추고 있다.

최초로 학과차원의 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실시계획으로서 첫번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행정학과 내부에서는 학생과 교수님들 사이에서 학과발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토의되어 왔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학과발전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던중 행정학과 고시방인 행선재(지도교수=정기섭교수)가 지난 여름 어렵게 일구어낸 공간을 행정학과 선 후배가 합심하여 기구자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고시방의 공간을 확보했으나 책상이나 부대시설이 미흡하여 고민하던중 학과교수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학과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던 학과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시범대로 선후배간의 유대와 합심을 보여주자고 하셔서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과정을 쫓 지켜보신 행정학과 학과장 심익섭 교수님은 "처음에는 선배들의 반응이 어



### 순수한 작은정치

민주주의의 연습장이 될 선거를 준비 학교는 또 한번의 몸살을 앓는다.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한 선거를 위한 준비모임이 과열된 분위기 탓인지 처음의 뜻과는 무관하게 서로에 대한 불신의 상처를 남기며 한 해를 마무리 한다. 대학에서의 선거는 기성세대의 선거와 구별될 수 있는 순수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기성세대의 오류를 비판하는 젊은 지성인을 자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선거관을 너무도 잘 알아가는 오류를 안고 있다. 같은 학생의 신분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정당한 선택의 결과로 상징되어야 할 선거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조금 지나친 표현이지만 음모와 배신, 그리고 험거부기로 대변되는 것이 선거에 대한 인상이다. 대다수의 침묵하는 학우들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흑색선전은 이제 대학선거에서 추방되어야 할 구시대적 유품이다.

학생회 선거는 작은 정치판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도덕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보여준 상을 보고는 느낀다. 학생회 선거에서도 상호간의 신뢰는 절대로 잃어 버려서는 안될 마지막 보루이다.

공약과 정책을 펴기 이전에 누가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많은 대안에서 빠져나와 있다. 각 지역세력과 알력다툼으로 건설된 학생회는 그만큼 낙담한 자치조직일 수밖에 없다.

올바른 학생회의 건설을 위해 유권자는 후보자의 성실성과 공약을 심판하고, 후보자는 당선이 최고의 목표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아는 선비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지성으로서 공인의 자격으로 깨끗하고 과열되지 않은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최용식 (상경대 경영학과)

### 교수 채용요구

요즘 행정학도의 밤이라는 노래가 순회 공연을 하고 있다. 이 노래는 학우들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흑색선전은 이제 대학선거에서 추방되어야 할 구시대적 유품이다.

학생회 선거는 작은 정치판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도덕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보여준 상을 보고는 느낀다. 학생회 선거에서도 상호간의 신뢰는 절대로 잃어 버려서는 안될 마지막 보루이다.

공약과 정책을 펴기 이전에 누가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많은 대안에서 빠져나와 있다. 각 지역세력과 알력다툼으로 건설된 학생회는 그만큼 낙담한 자치조직일 수밖에 없다.

올바른 학생회의 건설을 위해 유권자는 후보자의 성실성과 공약을 심판하고, 후보자는 당선이 최고의 목표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아는 선비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지성으로서 공인의 자격으로 깨끗하고 과열되지 않은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최용식 (상경대 경영학과)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발송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의는 230-3491~2 (0561)770-2357

### 민족정신의 기본

민족정통성을 회복하고 소중히 여기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우리 동국대학교 그러나 온방골 도서관 열람실 등 곳곳에 비치되어있는 대사전들을 들여다보면 민족정통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영어대사전과 한자대사전은 우리의 학구 심정부에 꼭꼭 놓여져 필요에 따라 꽤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 정작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우리의 말 국어는 뒷전에 제쳐진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일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와 논문을 영어만으로 쓰는 한자만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혹 순영문이 나 순한자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작문을 위해선 자국어 어휘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국어대사전의 비치와 이휘적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사전이라고는 국어, 영어, 한자 그 어느것도 비치되어 있지 않은 대졸실의 빈약한 서적구비를 지적하고 싶다.

민족의 동국정신. 이것은 기본을 채우는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문해철 (상경대 경영학과)

### 오늘을 사는 동국인-이종수 학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난 91년 진정한 근간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의지아래 정경활동중 '양심선언'을 한 이종수 동문. 한 인간의 권리를 전적으로 차출되면서 산산조각 내버린 군부의 억압에 참수 없는 분노를 느껴 양심선언을 통해 자신의 소박한 신념을 지키고 싶었다고 이종수는 조심스럽게 밝힌다.

88년도 본교 사학과에 입학하고 양심선언 이후 2년6개월 간 수배생활을 하면서 지난 6월 기독교회에서 다른 동지들과 농성을 했던 이종수는 지난 7월 청와대 항의시위중 연행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는 군인-전경 양심선언 지원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부귀부세를 두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학년 후배들이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학회활동에도 적극적인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을 어쩔 수 없어요." 88년도 학자부의 불꽃속에서 대학1년을 보낸 이종수 학우는 2년남짓 경험한 대학생활을 되새기며 아쉬운 눈빛을 띠지만 '신세대'인 후배들이 사회적·정치적 문제에 등한시 하는 것 같다는 안타까운 웃음을 보인다.

처음 시위대열에 참가해서 간신히 용기를 내어 던진 화염병이 분석집 간판을 불태웠다며 '수줍게' 말하는 이종수 학우.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보장 받고 진정한 군의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하루 빨리 실현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 미완성인 이종수의 학업의 꿈과 민주주의의 실현이 이뤄질지 기다려 본다. (곽주영 기자)

###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 만평, 기사내용에 따른 비유적절

지나호 동대신문에서 판사를 맡았던 기사는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로 베스트 셀러, 광고가 만드는데는 생활속에서 무엇이 되고 싶어지지는 못하지만, 그 점이 지적해 준 것 같다. 사정에 가서 무슨 책을 사야할지 망설여 질때 손이 가는 것은 방송 매체에서 연일 떠돌아다니는 소위 베스트 셀러라 광고되는 책들이다. 이런 책들을 읽고 실망해 본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정작 방송매체에 물들어 광고에만 의지하게 되는 소비자에게

도 문제는 크다고 본다. 두번째는 '근로자 파견법'에 관한 기사로 우리사회에 그 뿌리가 점점 깊어가는 힘든 노동자 파견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법을 고치는 것 조 중요하지만 우리자신이 먼저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버리고 직장에 대한 주인의식을 지니는 것이 근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세번째가 교육개혁에 관한 내용으로 이것은 며칠전 발표된 사립대 등록금 15%인상에 대해 물먹게 된 우리 학생들에게만 의지하게 되는 소비자에게

고 교육정책확보를 뒤로 미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사립대의 부패를 나몰라라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불신이 먼저 생기는 것이 사실이고 교육개혁의 의지가 있는가 의심이 가기가 한다. 뚜렷이 판심이 간 세기시 이외에 동국민명(東國民名)은 세번째 지적과 들어맞아 그 비유가 적절했거나 '불운'에는 더욱 신중을 써서 그림과 소재를 택해야 할 것 같다.

유은경 (과문대 국문과·본사 모니터)

### 동문잡담

### 이형석

어느 순간 지난 세월이 의미없는 것이었다고 느껴질 때처럼 허무한 느낌도 없을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고 있는데 파도가 밀려와 부숴버리고, 쌓으면 또 밀려와 버릴때의 허무함처럼 우리들의 기억 저편 구석에 처박혀 버려진 암울했던 세월을 돌이킬 때마다 그런 기분이 찾아들곤 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져, 너만 피보는 거야?" "니가 될 거라고 꾸버어?" 주위로부터 애정어린 걱정

린 지금에 와서 과거에 연연하게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고 싶다.

"과거가 현재를 규정한다는 말처럼 마찬가지로 미래는 현재의 결과라는 것을 명심하자. 어느날 갑자기 세상이 변할 것이 아니고 그 변화를 위해 눈을 흘린 수많은 시간과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별 의미없어 보이는 듯하나, 별 한포기도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사람의 세월이 왜 허무하게만 하겠는가?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는 이 시대와 역사도 소중한 생각하며 살자!

### 우리들의 노래

### 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심한 헐박과 회유에 시달리면서도 우리들은 왜, 그 세월을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내가 처음 대학문을 두드렸을 때 사람들은 내 눈을 보고 말하고 했다. 대학 4년을 보낼 때 쓸데 없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3년을 갖다 오니까 조금 이라고 했다. 사회생활을 5년쯤 하고나니까 실망했다고

있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다 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있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죽어 타도!" "민주 쟁취!"

거리로 뛰어치는 자유의 물결, 목메인 합성소리, 거머잡아 깨마다에 꿈틀대는 시대정신, 마추진 얼굴 가득히 머금은 환한 미소들..

어쩌면 잊고 사는 것이 편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

조대 만화 후세대 하주협 (인문대 미술학과)

만화 strip with characters and speech bubbles.

만화 strip with characters and speech bubbles.

만화 strip with characters and speech bubbles.

Large advertisement for '동막! 광장' (Dongmuk! Plaza) featuring a list of names and messages from alumni and students.



# 한·일 굴욕 외교에 죽음으로 항거

## 김중배 열사 산화...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 확산 계기돼



글쓰는 순서

1. 일제하 중앙학림의 민족해방투쟁
2. 사상의 불꽃, 김중배
3. 독재에 쓰러진 젊음, 김중배
4. 평범한 투사의 삶과 죽음, 노일현

65년 4월 23일 충북 증평군 고죽중배군의 동국대학교 학생정세시장은 보습비가 구슬뿜었다. "민족의 정당한 의사표시가 뒤가 쫓아내 죽어라 했더니... 두번 살리었음에 한번 쫓은 걸심 두번 다시 고칠 수는 더욱 없어 울고 잠들 죽음, 정의앞에 초개와 같이 내놓으신 형의 송고한 정신은 동국대학의 피속에 힘차게 흐를 것입니다" 학생대표로 조사를 낭독하는 유성영(농3)군도 조객들도 눈시울을 가득 적시고 있었다.

30년전 4월 대학가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진행중이던 한·일 국교정상화 회의를 주시했다. 당시 박정희정권은 경제난국의 타개를 위해 일본의 경제원조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동경과 서울을 오가며 4·19혁명이후 중단된 한·일회담을 재개하고 있었다.

자유당정권과 민주당정권, 5·16 군사혁명정권이 이르는 한·일회담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는 커녕 한국의 이익에 기여했던 것이라는 발언을 계속했고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년분할지불을 전제로 3억 불원조를 받기위한 당시정권의 저 자세외교는 30년일제통치의 쓰라린 역사를 경험한 국민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었다. 또한 일본의 국교정상화나 경제원조의 배경에는 경제발전이 따른 상품소비처가 될 해 외시장마련이 결실했던 그들의 경제사정을 감안할때 경제침략의 의도가 숨어있었다고 보여진다. 당시 야망이나 학계, 학생들은 자주성을 상실한 정권의 경제·외교정책이나 내용없는 일본의 원조계획을 저자세로 받아들이려는 정권에 반발하고 있었다.

64년 초 정국은 학생들의 반대시위운동으로 혼란에 휩싸였다. 3월 24일의 본교 5천여명의 시위대를 포함한 각급 대학들이 참가해 벌어진 대규모시위는 그 절정에 달했다. 당시 본교 학생 5천여명은 중앙당에 모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불꽃처럼 교문을 빠져 나왔다. 시위대는 '매국적 외교사절을 즉각 소환하라', '있었다 30년', '굴욕적

한일회담을 결사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퇴계로를 지나 울지로 47가, 종로4가로 접어들었다. 거리는 시인들의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의 사당에서 타대학 시위대와 합류한 이들은 매국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정책을 수수방관해온 국회를 규탄하며 연좌시위를 진행한 뒤 청와대로 향했다. 당시 총학생회장인 김중배가 시위대의 대표로 박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구속학생선방과 정부와의 회담을 약속받은 뒤 해산했다.

이날의 본교의 선도적 투쟁이 알려진 뒤 이후 학생들의 시위는 전국적으로 번져갔다. 부산대, 경북대 등도 시위에 가담했으며 심지어 배재고 등 고등학교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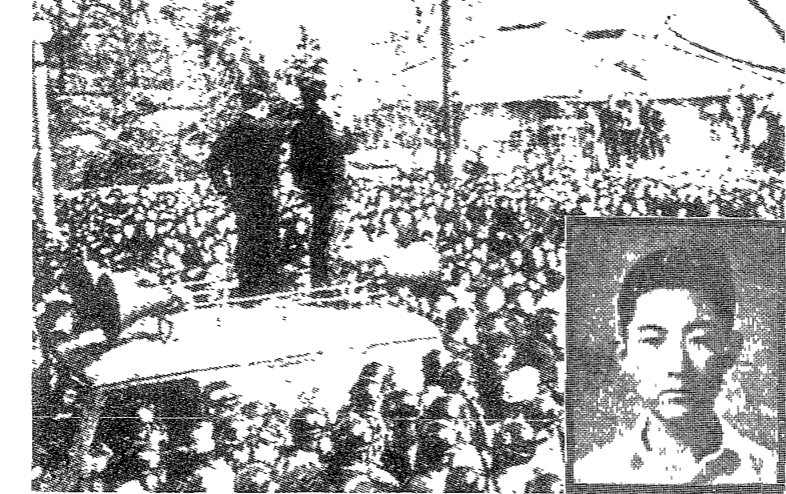
이처럼 제2의 을사조약이라 일컫지는 한·일 굴욕외교에 대한 반대 시위가 불분침 확산되자 박정희군사정권의 시위진압 양상은 더욱 거칠어졌고 이는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야기했다.

앞을 수 없는 4월 13일, 각 대학들은 이날 전국적인 시위를 진행키로 하고 학교마다 성토회를 개최했다.

본교 8백여명의 학생들은 이날 오후 1시 교정에서 한일굴욕외교 반대성토회를 열고 오후 2시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충무로에서 경찰의 저지를 받아 퇴계로로 빠져 시내 중심으로 나오자 숨어있던 경관 1백여명이 본봉으로 마구매러 김중배(농3), 박종남(경4)군등 10명이 이마가 깨져 길바닥에 쓰러지고 70여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이같은 경찰의 강경진압은 거리로 나서는 각 학교학생시위대 모두에게 가해져 수많은 중상자들이 길거리에 나뒹굴었다.

당시 서울대병원 담당의사 조영희씨는 "김군이 오른쪽 귀가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고 출혈이 심해 수술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군은 타박상으로 두개골 저골 골절에 오clus 두부파괴의 파인출혈이 계속되다 15일밤 8시15분 운명을 달리했다.

이후 정부는 김군 사후 3일만에야 사인조사에 착수하며 경찰근봉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는



◇당시 본교 학생들은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주도했다. 사진은 본교생 5천여명이 참여한 청와대 입구에서 반대를 위한 결의문 낭독 모습이다. 좌측 인물은 당시 경찰근봉에 맞아 숨진 김중배군이다.

선에서 수사를 종결지었다. 사고당일 김군과 함께 있었던 김효중(생2)군은 시위가 진행되던 충무로57에서 경찰근봉세례에 자신이 쓰러진후 김군이 그위에 쓰러졌고 박상영(생2)군이 김군을 부축해가다 박군을 경찰이 연행한 뒤 김군을 길에 그대로 내려버려 두었다고 한다.

김중배군의 운명소식을 들은 본교 3천여 학생들은 '김중배군을 누가 죽였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추모시위를 격렬하게 벌였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사로부터 시작된 이날 시위에서 학생들은 '김중배군을 잃어버린 우리의 슬픔은 동국 5천전교의 슬픔이요, 전 민족의 슬픔'이라고 격려했다.

김군의 사망소식에 각급 학교와 재인사들은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군사독재의 민생을 규탄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본교 교수회도 자재전장조사위원 꾸리고 박정

권의 정략적인 수사와 허위·축소조사발표에 강력히 대응키로 결의했다.

김군의 부친 김현영씨는 "법치국가라는 곳에서 애국하는 학생을 때려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확한 사인규명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장례식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김군의 죽음은 일파만파로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확대되어 갔다.

일본에 대한 사대주의·종교의 잔존을 배격하고 민족자존을 부르짖었던 애국정년 김중배의 정신은 민족에 경종을 울렸고 군사독재에 대한 실천투쟁이 제기되었다.

독재에 저항하다 못다된 채 쓰러진 김중배는 능어촌연구부에 있으면서 농촌운동에 뜻을 두고 4월를 협동농장을 운영하던 학생들이었다고 당시 선배들은 전했다.

30년전 민족의 운명을 자신은 내

맡았던 김중배선배의 정신은 아직 완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일굴욕외교반대를 주장하며 토론회석상에서 본교 중앙당을 쾜령저항하게 울렸던 당시 민정당대표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되고 김선배와 함께 거리를 뛰었던 이들이 정치권의 지도자로 서 있던 김선배가 바라는 세상이 왔다고 보여지는 않는다.

30년전 김중배의 죽음에 대해 윤조리던 그의 형 김양배(본교 경제졸)씨의 말이 가슴을 파고든다. "이제 다 피지듯 못하듯 숨겨진 그는 조항 피안의 세계에 서 한사 바배 국가가 일어설길 기도하고 있으니 동생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되겠다"

동학이 김중배를 떠나보냈던 그 때처럼 청년이 부동케언이아 할 조국은 기득권자 만이 되버린 채 우리앞에 여전히 서 있다. (박수호 기자)

### ◇ 양군모 활동과 전망



◇양군모는 지난 1일부터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및 철야 농성등의 활동을 벌이며 부당징집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파괴 군사 통치 전체 정신”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앞세우며 출범한 문민정부에 걸맞지 않는 하나의 조직이 있다.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그 이후 때문에 감옥문을 나오자마자 곧 징집되어야 할 젊은이들이다.

1년이나 1년 6개월간의 영아생활을 감내했던 이들이 시대의 희생양이자 문민정부를 낳은 밑거름임을 이미 새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시대가 바뀌어도 호전되는 것 같지 않다. 감옥에서 보낸 시간 때문에 학업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학업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그들의 삶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명예 회복을 원하며 부당한 억압이 남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양심수들의 사회적 보상으로서 문민정부에서 마련되는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

그반면 국방부는 병무청이 제안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마침내 지난 10월 8일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마침내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에 대해 양군모측은 “국방부가 과거청산과 개혁이라는 국민적 동의에 부응하지 못한 채 병무청을 강제해 개인적 징집명장을 계속 발부하고 있다. 병무청의 이러한 태도를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로 봐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들은 현재 발부되고 있는 징집명장이란 과거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제도의 폭력에 다름아니라고 규정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 10월 18일부터 기독교관 3층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 부당징집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 국회탄원등 5·6공 청산운동 활발 단순한 병역거부 아니다

#### 문민 정부 잣대 '시험무대'

기 위하여 양군모는 지난 1일 이후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번꼴로 병무청을 방문했고 청와대, 국방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해 놓았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헛된 것만은 아니어서 지난 5월 8일 병무청장은 “대상자들의 징집을 연기하겠다”고 공언하고 6월 8일에 열린 국회상임위에서는 정대철(민주당)의원, 임태정(민주당)의원 등 국방위원들의 “부당징집을 철회하고 시행령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호의적인 답변을 얻기도 했다.

그결과 지난 7월 6일 병무청은 현행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병무청의 행인기관인 병무청까지도 과거의 병무행정 이 정치적 이유에 의해 좌우되었음을 인정하며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이들 5·6공하의 양심수들의 병역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민주당 상 의방문과 함께 대규모 농성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처럼 부당징집의 위기에 처한 학생은 본교에도 18명이나 된다. 지난 8일 총학생회 선거 3차 유세대 양측후보선거운동본부에 의해 ‘양심수 부당 징집 해결을 위한 공동 성명서’가 배포되었고 이날 이들은 모금함을 돌리기도 했다.

또한 양심수 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성키 위해 각계각층에 탄원서를 요청하여 본교 총장을 비롯한 다수 교수와 직원들의 내 정부 탄원서를 받았다.

최근 양군모의 움직임은 단지 ‘군에 갈 수 없다’는 요구가 아니라 정상적인 삶의 기회를 확보하는 나, 아니면 삶의 율터 밖에서 어 두은 그림자로 살아가는나의 갈림길에서의 절박한 생존의 투쟁이다.

이들의 문제를 과거 청산의 전제에서 새정부의 문민정부다운 구제 조치가 요정된다. (양수정 기자)

### 통의로 선거 불감증

리는 학생들의 정서적 학생회선거는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위원의 진단은 지금의 온방을 학생대중의 '선거불감증'을 제대로 설명

“어, 우리과 학회장이 총학에 나왔네”

총 3개조가 출마한 경주캠퍼스 제11대 총학생회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5일, 학교 곳곳에 붙은 공약자보를 후보자 사진만큼 유심히 보는 이들은 학생파권원 정도였다.

경선보다 단일후보가 훨씬 많았던 지난11일 단대선거는 가까스로 파란수를 넘긴 투표율로 마무리됐다.

그나마 의과대는 입후보자가 없어 아직 차기 학생회선의 주인을 못찾고 있다.

전국 각 대학의 학생회 선거호들이 저조한 투표율로 특징지어진 올해, 온방들은 선전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타는 예전에 보기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년처럼 사회적 정정이 부각된 것도 없고 소위 신세대도 불

현실이었다.

때문에 온방을 학우대중이 헛공약과 ‘더러운 선거판’에 등을 돌리는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지난 12일 전국사립대총학생회 의회(회장=민병철·본교총학)는 임시 총회를 통해 내년도 등록금을 10~15%선에서 일괄인상기로 합의했다. 내년 등록금이 멀지 않은 것이다.

기성회투쟁, 고수권철폐문제는 여전히 완결되지 못했다. 작게는 학생회내 식당의 결점 반약해제라는 식별의 내용들을 지켜볼 수 있다.

“선거?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나. 학교 파권전 없던 것 같던데” 할말없는 내년 경주총 총학사입과 제안문제해결을 위한 힘을 모기기 위해서는 다시 온방은 학생회를 세우기위한 학우대중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또한 선명되야 할 것은 각 후보자들의 투명한 공경선거실천의 지침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재환 기자)



## 세계경영 우리기술-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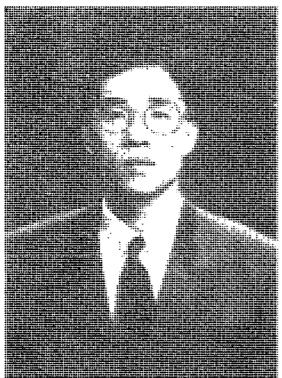
# 왜 모두들 돌아오

“ 더 나아가기는 커녕, 남아있던 해외터전마저 내주고 오는 오늘— 대우는 우리경제의 사활을 「세계경영」에 걸고 경제도약의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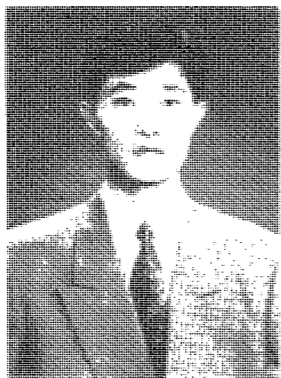
# 제11대 총학생회 입후보자 인터뷰

# 학생회 강화의 한 길에서

## 학우의전수럼 창구마련 행정·인사권분리 추진



정: 류재성 (조경 3)



부: 배인호 (경영 3)

### 기호1번

①과거와는 달리 학원민주화 투쟁의 노점에서 나타난 학우들의 무관심, 투쟁의 비과학성 등의 문제들이 드러났었다. 이제 학생회는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학우들을 만나고 일상사업보다 민주적 운영과 학우들의 지치와식을 고양시키면서 진보적인 생활공동체로서의 학생회를 만들며, 나아가 90년대 지성인의 모습을 입구어 가야 한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이끌어 내어 회장이 임명될 수 있는 21세기를 개척하는 학생회 건설을 위해 입후보 하였다.

②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학평가기능정체니 하며 일약한 지방대학을 더욱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학교의 위상을 정립하고 끊임없는 학교진보를 위해 동국발전위원회와 물가조절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겠다.

또한 학우들과 학생회와의 거리를 좁히고 학생회 사업을 학우들의 생활속으로 이끌어 내기위해 1주일 총학생회장, 전 학대학회의 강화, 이동 총학생회등의 제도와 의견개진을 위한 여러 통신타들을 구축할 것이다.

③전반적으로 10대가 다른대 학생회보다 공약실천에 있어 성실하게 이행해 온 것으로 평가하나 88년 이후 학우들의 무관심 속에 투쟁을 학우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여전한 문제로 남아있다.

등록금 투쟁을 보면, 여느해와 달리 힘의 기울어 내었으며, 합의사항 또한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학

원개혁으로 대중을 선동해 내는데 실패한 것 같다.

또한 기성회부원에 있어 경주기성회 구성, 민주적 대의원 구성을 통한 독립채산제 실시라는 원칙을 고수하지 못한채 투쟁을 정리했다는점이 아쉽다.

④사립학교법 개악으로 개관적 조건은 인사가이 재단에 부여되어 있어 경선없이 낙점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견수렴없이 개악된 사립학교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총학생들은 직선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님, 교직원, 학생들이 총장후보교수님들의 유세를 높아 안에서 들을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수님들의 생각이 반영되며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는 총장선거를 위해 교수님들과 개별면담을 실시하겠다.

⑤서울캠퍼스는 항상 본교로 불리고 경주는 본교라 부를수

없었다. 우리는 우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서울 본교를 서울메트로로 경주캠퍼스를 경주메트로로 부르는데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자치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독립채산제, 1대원2총장제가 거론됐지만 현재의 사립학교법 아래서는 도저히 불가능한게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이 사립학교법 개정투쟁과 동시에 부총장 권한확대, 투쟁을 전개할것이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행정, 재정, 인사권 분리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⑥학우들이 직접 참여하는 1인칭학생회를 건설해 내겠다. 1주일 총학생회장제 등으로 한상속의 학생회가 아닌 직접 학우들의 총학생회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정리:이민영 기자)

경주캠퍼스 제11대 총학생회는 지난 12일 3개조가 임후보한 가운데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변화와 모색’이라는 과제가 학생회를 준비하는 이들 앞에 놓여있는 만큼 더이상 흑색·상호비방 선거양태가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본사에서는 이번 선거가 경주캠퍼스 발전과 학생회 강화를 위한 정책생산의 장이 되길 바라며 각 후보들의 인터뷰와 주요정책·공약을 게재한다.

공동 질문요지  
①제11대 총학 후보로 출마하게 된 동기는  
②주요 정책과 공약을 든다면  
③제10대 총학생회 사업을 평가한다면  
④94년도 총장 선출에 대한 견해는  
⑤경주캠퍼스 자치권 확보의 장·단기 계획은  
⑥제11대 총학생회의 운영 방안은?

일시:11월15일  
장소:본사 부주길  
인터뷰:각 조 정·부인 후보자 본사 취재기자

## 각 후보 주요정책 공약

### 기호1번

◇오름구호:미래를 개척하는 열린 실천! 개성, 자치, 참여로 다시 서는 동국여! 1만 지성의 자신감으로 21세기를 준비하라!  
진보의 합성! 생동하는 학원!

◇학교사랑·학교발전을 위해  
◇교우회관 토대마련 △서경, 서적의 다양화 △취업계를 취업과로 승격  
◇진보와 지성의 1인칭 학생회  
△1주일 총학생회장, 이동 총학생회 △학회 및 단대계열 운동 지원·확대  
◇진보의 합성, 생동하는 학원  
◇교육과정정보투쟁 △근본적 사회개혁투쟁 →진보 정당건설

### 기호2번

◇오름구호:학원자주의 실천과 믿음으로 당당히 선진 동국건설의 새 강을 개척하라! 그대, 온방울 청년 학우여!!  
◇학원자주의 투쟁  
△경주 자치권 확보를 위한 일대단 이총장제 실시 및 전국 제2캠퍼스 총학생회 연합 출범 △등록금 인상 저지 △대학 행정사무의 간원화

◇취업과의 전쟁  
△부총장 직속의 취업과 신설 △산학연계를 통한 취업 통과마련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각과 교과외 결성과 강의평가제 도입 △대학원 마스터 플랜 제시  
◇복지정책  
△스쿨버스 증설과 제2운동장 설립 △화장실 보수 및 핸드 드라이기 설치 △스물가 및 방앗 인상 저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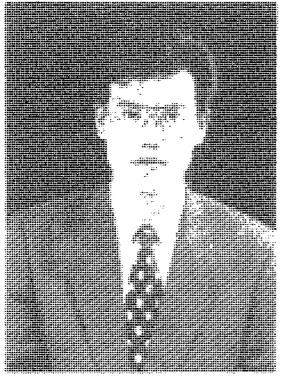
### 기호3번

◇오름구호:1만 청춘의 기백으로 지주학원 건설의 불패를 선언한다.  
◇자주적 학생회  
△강의평가제 실시 △교과위의 활성화 △강의계획서 사전공개 △학회건설 적극 지원 △강의실 난방시설의 활용 △출입식, 대동계 백상채건의 문제점 개선 △도서관 환기시설, 방음시설 설치  
◇동국인의 복지와 동국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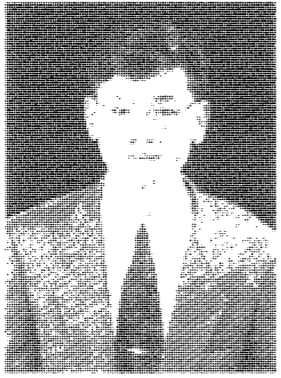
△취업 대책국의 강화 △취업정보센터와 학교의 직접연결로 다양한 정보제공 △교수추천서 확보 △각 직종별 취업특강 실시 △성경동맹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매체에 폭로 △구내 서점에 전문서적, 취업수험서 비치, 스쿨 버스의 운행정진, D·C카드의 활성화와 가맹점 확대 △경주캠퍼스의 자주권력 확보 투쟁 △동국발전위원회의 강화, 교육과정 확보 투쟁 △북학생협의회의 신설, 각 식당의 개선  
◇통일을 위한 준비  
이북의 대학생과 편지교류를 통한 이북 바로 알기

(정리:이재환 기자)

## 독립채산제-2총장제 관철 산학연계 통한 사회진출보장



정: 이흥석 (회계 4)



부: 박형규 (철 3)

### 기호2번

①사실 이제까지의 학생회는 편향된 운동권 세력에 의해 움직여왔기 때문에 학생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경주 자치권 문제, 취업문제, 교육환경개선문제 등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학원 자주화로의 실천과 믿음으로 당당히 선진 동국건설의 초석이 되겠다 한다.

②취업과의 전쟁을 통해 현 학생과 내의 취업계를 부총장직속의 취업과로 승격시키고 주변지역 산학연계를 통한 취업통과를 마련하며 교과과정 편성과 강의평가제 도입 및 대

학원 설치, 학교비서 증설과 화장실 유지결이, 핸드 드라이기 설치, 학원지주와 투쟁으로 경주 자치권 확보를 위한 일대단 이총장제 실시 및 전국 제2캠퍼스 총학생회 연합 출범과 등록금의 인상저지, 지주-민중 대항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방안 마련과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 등 주요 정책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겠다.

③제10대 총학생회의 사업은 전반적으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학생회 운영을 해왔으며 1학기말에 있었던 기성회 총회는 뚜렷한 대안과 방향설정이 부재한 결과 학우들의 학생회에 대한 불신감만 고수시킨 가운데 과학회에서 단대 학생회로, 단대학생회에서 총학생회로 동적되었던 그 열기를 아무런 성과도 없이 회생한 치론

엄장한 오류를 범했다. 시작과 끝이 달랐던 총학생회. 이제는 첫 단추부터 바로 끼워 마지막까지 고쳐나가겠다.

④궁극적으로 일대단 이총장제를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내년 총장은 교수, 교직원 학생대표 즉 학원의 3주체가 모여 민주적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⑤경주 자치권 확보 문제의 장기적 실천 방안은 독립적인 행정망과 독립 채산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일대단 이총장제를 통해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자치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단기적 실천 방안으로 먼저 총장과 재단, 학교 당국과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경주 자치권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기한 이후에 경주 캠퍼스 부총장제에 실질적인 권한(인사권, 결재권)을 부여

여야 경주 자치권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⑥기존 상층 중심구조의 학생회 운영을 기본에서부터 전면 탈피, 단기적으로 분기별 실무조사 및 정명회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정책입안의 구도를 만들 것이다.

또한 장기적 안목으로 지난 학생회사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단계적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민주적 총장 선출, 독립 채산제, 독립 행정망 구축, 등록금 인상저지, 제3캠퍼스 건설 논의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에 매진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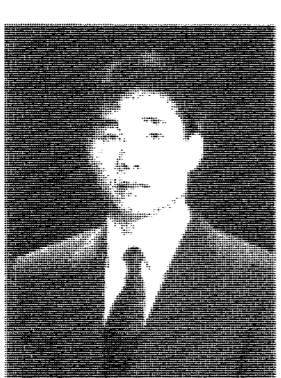
명확한 계획과 운영으로 21세기 선진동국건설의 초석을 이루는 학생회를 만들겠다.

(정리:윤진화 기자)

## 경주캠퍼스 발전장기계획 수립 취업·학생복지 주력할 터



정: 박상만 (경영 3)



부: 박종태 (국문 3)

### 기호3번

①그간의 학생회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풀어왔다. 그러나 진정 학우대중에게 열린, 학생들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한 학생회는 되지 못했다. 정치적 입장에서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학생회,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학생회를 지양하고 일만 동국인을 주인되게 하는 보다 낮은 학생회, 자주적 학생회 건설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에서 제11대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 했다.

②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 학우대중의 자주적 삶을 이룰 수 있는 학생회를 위해 우선 식당의 식단개선, 서적 직영화,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취업

확대를 위한 취대국 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등 학생들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인 복지·취업 문제 개선 마련책으로 다가서겠다.

또한 과다한 교과위를 바로 세워 중앙 교과위를 강화, 강의 평가제도를 실시하며 도서관 전문서적 및 장서확충을 통해 학교와 문화포도점적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95년 통일투쟁의 일환으로 국가보안법및 노동악법 철폐투쟁의 대중화를 이끌어 가는데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이북학생과의 편지교류등도 추진하겠다.

③내부에서 열심히 사업을 이행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학생회만의 사업으로 일관했다.

교수진결 저지투쟁과 기성회 투쟁에서 보였듯이 사업의 대부분이 보여주기식의 가시적

사업품도였다는데 문제가 있다.

기성회 부원만 허다라도 방학 바로전에 실시, 학우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등 사업준비 불철저와 의견수렴부족이 눈에 띄며 학우대중에 뿌리 내린 학생회가 되질 못했다.

④정당한 총장선출의 형태는 낙점인사가 되선 안된다.

일방적 재단선임이 아닌 학생·교직원·교수 학내 3주체의 의견이 수렴된 '학교의 총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문화운동의 확대 실시로 선진동 불기에 대한 여론조성과 북학생 협의회를 신설 하겠다.

취업과 학생복지에 힘을 기울이며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로서의 자주학원·학생회건설을 이룰것이다.

적으로 계속·혁신해 나가야 한다.

또한 경주캠퍼스 발전계획이 미비한 현실에서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제3캠퍼스 건립안을 저지시키고 경주캠퍼스의 권리와복을 위해 다각도의 발전계획안을 세우고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

⑥학교는 준사회라는 개념속에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학원건설을 위해 힘쓰겠다.

또한 생활문화운동의 확대 실시 시로 선진동 불기에 대한 여론조성과 북학생 협의회를 신설 하겠다.

취업과 학생복지에 힘을 기울이며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로서의 자주학원·학생회건설을 이룰것이다.

(정리:이재환 기자)



# 내가, 넘어야 할 산은 밖에 있는데...

이 땅의 청년들이여,  
눈을 들어 세계를 보라!  
세계를 양분시켰던 이데올로기가 퇴조한 오늘,  
한국은 배타적 경제개방주의로 치닫고 있으며  
로골계 체재중인 新국제질서에서 살아남고자  
열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세계경쟁력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C, NAFTA, 우루과이라운드, SUPER 301조 등  
'역강벽'에 가로막혀 남아있던 해외터전마저  
주고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 돌아옴'이, 넘어야 할 산은 밖에 있는데...  
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경제가 살아나려면  
'시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경제의 사활을  
'세계경영'에 건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해외진출방식으로는  
세계시장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처럼 단순히 물건을 내다파는 것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국제화전략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해외현지에 우리공장을 세우고, 세계1등상품을  
우리기술로 만들어 현지에서 직접 팔아야 합니다.  
생산에서 서비스까지 기업경영의 모든 요소를  
세계적 비교우위 관점에서 네트워크화하는  
총체적 해외현지경영 -  
이것이 바로 '세계경영'입니다.  
'세계경영'이야말로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오늘날 우리 기업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입니다.

대우와 함께  
'세계경영' 대장정으로 -  
경영의 토착화에서 생산·판매·R&D의 현지화,  
자원기지화, 금융의 복합화, 그리고 기술정보의  
세계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  
대우는 '세계경영'에 우리경제의 사활을 걸고  
한민족의 미래를 세계무대에서 열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 가장 넓은  
86개 해외지사 및 각 분야별 65개 현지법인으로  
'95년에 250개, 2001년에는 300개로 확충,  
지구촌에 우리의 산업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성장한계를 기필코 극복할 것입니다.  
안으로는 한민족경제의 생존을 위하여,  
밖으로는 21세기 초일류 기업을 목표로,  
대우의 '세계경영' 대장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경영**

대우가 있습니다.

# 사면에 사불정도 새겨진 부처바위

## 민중문화의

### 당세력 축출위해 만든 정신지주 스님·석공들 나라안녕 빌었던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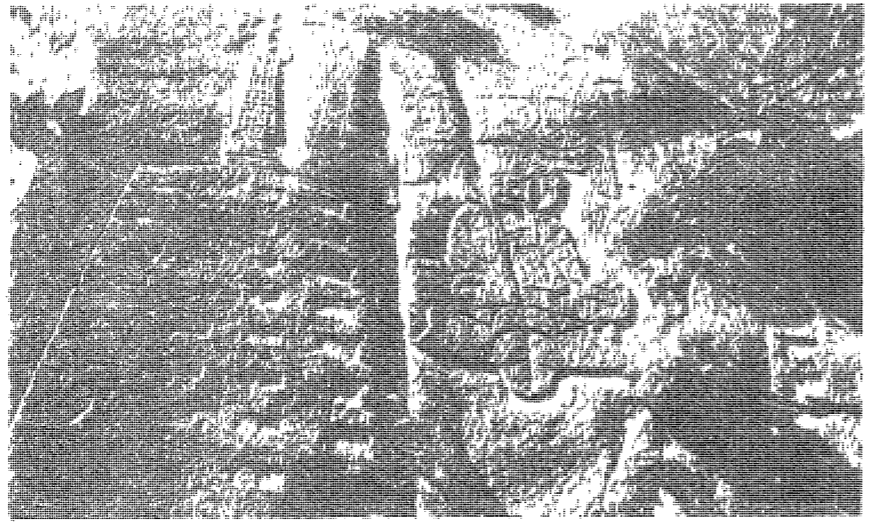
#### 경주남산 불교유적

경주 남산 기슭. 반월성 앞으로 유유히 흐르는 남천을 거슬러 1.6km쯤 걸다 보면 탑골마을이 나타난다. 탑골마을에서 탑골여울을 거슬러 1백50m쯤 들어가면 옥룡암이 나오고 산령각과 칠성각의 사잇길로 통해 대밭을 지나면 높이 10m, 둘레가 약 30m 가량의 큰 바위더미가 보이게 된다.

이 바위가 바로 토속신앙과 불교신앙이 합쳐서 이뤄진 민중신앙으로 이 땅에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려던 옛 신라인의 애국충정이 깃든 유서깊은 유적인 부처바위이다.

바위 사면에는 불상·보살상·나한상 등 2체의 불교상이 새겨져 있을 뿐 아니라 독종법암이며 사자상까지 새겨져 있어 신비스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사방 사불정도가 사면 곳곳에 이뤄져 대우주 화엄세계로 통칭된 부처바위 이 바위의 북면에는 여러 보살과 나한들에게 설법을 하고 계시는 석가여래 부처님과 양쪽에는 쌍으로 목조탑이 웅장하게 솟아 있고 위로는 비천이 날고 있다. 이는 화려장엄한 석가부처님의 영산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위 밑에서는 새이 솟아 나오고 있어 신령스런 기운이 흐른다. 서면은 면적이 좁은 곳으로 부처님 한 분과 비천 하나만 새겨져 있다. 또한



머리위에 화려한 천개(天蓋)가 떠있는 여러 불상이 새겨진 부처바위의 북면. 불상의 양쪽으로 웅장한 동탑과 서탑의 모습도 보인다.

그 앞에는 이곳이 불국정토임을 알려주는 듯한 삼층석탑이 자연과 어우러져 서 있었다. 부처바위의 연대에 관해 일 부수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을 때다. 이를 미리 알기엔 신라의 문무대왕과 신하들은 눈의 끝 에 응급에서 비법을 배워왔다 는 명랑법사를 불러오게 된다. 명랑법사는 "남산 신유림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도량(道場)을 열면 좋겠습니다"고 말하자 마자 "지금 서해 바닷가에 수 없이 많은 만나라 군함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라는 다급한 전갈을 받게 된다. 옛부터 면면히 내려오던 바위신앙인 토속신앙과 사방 사불정도의 세계를 염원하는 불교신앙이 합쳐서 이뤄진 민중신앙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굳건히 나라를 지켜왔던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 되어왔던 것이다. 이를 역력히 보여주는 유적이 바로 부처바위인 것이다.

신라 국방의 심장인 남산성으로 향하던 수 많은 병사들이 한뼘쯤은 무운(武運)을 빌었을까. 부처바위 앞에서 전여대일여의 빛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많은 스님과 석공들의 바위면을 조던 스리가 지금도 허공을 뿜는 듯하다. (문화부)

바단을 둘러치고 천개를 덮고 불을 베어 오방신장(五方神將)을 만들어 모시고 신인종 문두루의 비법을 기도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서해바다에 태풍이 일어 당나라 군함들은 쓰러져도 못하고 침몰되고 만다. 그 후 679년에 기도가 드리던 곳에 크게 절을 짓고 사천왕사(四天王寺)라 했다.

이러한 명랑법사의 신인종과 관계되는 '신인사'라 새겨진 기와조각이 이 터에서 발견된 사실로 고구려가 항복한 후부터 사천왕사를 세우기 이전까지 약 10년 사이에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부처바위가 만들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삼층탑을 향해 얇은 나한상은 나라의 안녕을 기도하는 명랑스님이 아닐까. 옛부터 면면히 내려오던 바위신앙인 토속신앙과 사방 사불정도의 세계를 염원하는 불교신앙이 합쳐서 이뤄진 민중신앙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굳건히 나라를 지켜왔던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 되어왔던 것이다. 이를 역력히 보여주는 유적이 바로 부처바위인 것이다.

### 쓰레기 공화국

박명희 (사범대 가교과 교수)

"상쾌한 아침엔 삼부로 머리 감고 거울앞에선 무스르 단장을 하고 하얀 연기를 뿜는 자가용 타고 친숙해진 소음속에서 나가지 않겠나 한 식당에선 언제나 인화용접 인화용접 깎아내려 쓰러지고 문 화인이라 음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내린진 많은 무관심과 이기심 속에 이제는 더이상 맑은 공기를 마실수 없잖나!

공정배우 예기에 으레히 화를 내고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더러워진 외출복은 힘생세제로 세탁하지...

우리가 내린진 많은 무관심과 이기심 속에 이제는 더이상 맑은 공기를 마실수 없잖나!

이 가시는 국민학생인 내말이 즐겨 부르는 환경 노래의 가사이다. 이처럼 노래의 가사뿐 아니라 요즘 신문지면을 보면 환경과 관련된 기사가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실리고 있으며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그만큼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또 모두들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학에 있어서만은 모두 각별화된 피부의 무심한 사람들만이 살고있는 이상한 나라의 쓰레기 공화국 쯤 되는 것 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지나친 비약일까? 환경에 관한한 치외법권적인 장소가 등극대학이 아닌가 생각된다.

얼마전 깨끗이 페인트 칠을 한 학생회관 벽면에는 깨끗한 곳일수록 플라기며 여러가지 팝플렛이 덕지 덕지 붙어 있을 뿐 아니라 강의실마다 먼지가 쌓인 교탁하며 창문, 그리고 자판기 옆에 나뭇가지 처럼 있는 인화용 접합과 쓰레기통 옆에 떨어져 있는 담배꽂이... 후자는 워낙 진흙이 뉘었다거나 또는 장소가 워낙 비좁아서 등의 이유를 들지도 모른다. 또는 휴탕물 뿜기엔 진흙탕에 평준다고 워낙 깨끗이 못하니가 무심하게 더럽게 쓰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 버렸다든 변명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백년이 넘은 건물을 아끼며 깨끗이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오래된 대학들은 어떠한 가까운 예로 오래된 사찰들의 정갈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사실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가치관에 기인한 것이 고 볼 수 있다. 자연에의 순응과 조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불교의 정신으로 설립된 동국대학이 깨끗한 환경을 찾을 때는 언제쯤일가를 생각해 본다.

남산의 자연에 둘러싸여 깔끔하고 정돈된 학교에 들어서서 조용하게 그리고 여유있게 한잔의 녹차를 마실 수 있는 정갈한 환경을 상상해 본다. 아니 상상하는 것 아니라 꼭 실현해야 할 일이 아닌가?

### 경주 남산 수문장을 찾아 민족 얼굴 찾아 흠 빛은 윤경렬을 "남은 여생 남산과 보낼 작정"

"한밤, 한밤, 땀방울을 이 땅에 흘리면서 보고 느끼는 것만이 우리의 민족문화라는 길이 지 책 벗긴, 몇 줄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문화를 알게되는 것은 아니야"

경주 남산의 한적한 양치마을, 남산의 유물·유적들과 반평생을 보낸 윤경렬(향토사업가 78세)은 나즈막한 목소리로 직접 보고 느끼는 길만이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마치 산신령을 연상케 할만한 새하얀 백발, 구김살 하나 없어 보이는 얼굴 등 용의 외적

인 지체는 남산의 유물·유적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말해주는 듯하다.

합경북도 주읍에서 태어난 윤은 젊은 시절 우리민족의 얼굴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고국산천의 유물에 관해 연구를 시작하면서 흠을 찾는 방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본유학 길을 떠난다.

3년간 일본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난 뒤 개성으로 돌아온 윤은 스승 고유섭선생의 "너의 손에는 일본의 특이 스퍼였구나. 그 특을 빼기 위해서는 경주 남산의 흠을 10년간 만져야 한다"라는 말에 따라 1942년 신라의 옛 수도인 경주에서 터를 잡게 된다.

"집어넣어 이르는 남산의 마애불은 농담도 받아줄 듯한 정다운 인간의 표정을 짓고 있지요. 이는 중국에도 일본에도 볼 수 없는 우리민족의 얼굴입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한다.

남산 유물들의 커다란 특징에 대해 윤은 두가지로 이야기 한다.

신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믿었던 토속신앙인 바위신앙과 불교신앙이 융합된 유물들이 많다는 것과 남산에



윤경렬을

서있는 석탑들은 대개 6.7m미터 4.5m되는 작은 규모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적인 탑들은 산이나 바위에 닿는 기단에서 과감하게 인공을 생략하여 자연과 어울리도록 처리하였기 때문에 바위산이 그대로 하늘에 닿아 탑으로 승화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석탑들은 신라인의 예술이 자연과의 조화에 그 생명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윤경렬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일제시대를 보낸 일본에게 때 가 풀은 전세대로부터 무엇을 배운다는 것보다 때묻지 않은 정신으로 우리의 민족문화를 보존하면서 새롭고도 특창적인 우리만의 문화를 창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30살의 젊은 나이로 고향을 떠나 이곳 남산을 찾아온 윤경렬의 반평생은 그 자체가 남산 유물중 그 하나로 자리잡은 듯 "이제 무엇을 준비하는 것 또한 육신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조용히 이곳 남산과 함께 보낼 작정입니다"고 살며시 말을 으시며 가을바 내리는 남산을 응시하고 있었다. (김태성 기자)

### 인간 진실·정의 담은 전쟁문학

五味川純平 '인간의 조건'

인간 진실·정의 담은 전쟁문학

“언제까지 걸어도 끝이 없다. 돌아서 걷는 걸이란 그런 법이다” ‘인간의 조건’의 허두 문장이다.

대략 3학년 때라고 기억한다. 고향에서 여름방학을 보내던 나는 우연히 이 소설을 손에 들었다가 간절한 문장과 흥미로운 사건의 전개에 이끌려 책을 놓지 못하고, 더구나 작품 전체에 흐르는 주인공 가자(加賀)의 진실성과 정의감, 그리고 그의 애인 미찌코(美千子)의 희생적이며 단시일인애에 감동했다.

이 책이 처음 나온 1959년경은 아직도 일본에 패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때였고 우리나라에도 6.25의 상흔은 깊었지만 아직 전쟁문학이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을 때였다. 따라서 일본의 군국주의는 다소 반성의 기미가 보였지만 소위 황국이라 자처하던 군대를 가졌던 그들은 함부로 반전문학이나 염전사상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이러한 시기에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하여 일본의 군국주의를 매섭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다시말하면 아직도 일본에서 군대라는 것은 일본사회

가 가공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그는 실제의 인물이기보다는 작가의 상상력과 작가의 꿈을 담은 가능성의 인물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공의 진실이 소설의 매력적인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사망하는 아내 미찌코와 이별을 하고 입대의 고배를 마신 가지는 가혹하고 비정한 병영생활에서도 강요로서 최대의 인간적인 양심과 선의를 가지고 부하와 동료들 보살피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마지막에 그는 대륙의 허허벌판에서 눈에 덮혀 목숨을 잃지만 그것이 그의 정의감과 좌절이나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의 인간성은 그 죽음을 통해 완성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전쟁문학이라는 하지만 이 소설을 읽고서라도 소감을 쓰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그 뒤 10여년만에 나는 '현대문학'지를 통해서 작가가 되었으니 내겐 잊혀지지 않는 한 권의 책으로 기억되고 있다.

김용철 (본교 출판부장·소설가)

###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 - 삼성

이제 그린기능에서, 성능에서, 편리성에서 한차원 높은 수준의 컴퓨터를 만난다

미국 환경청 (EPA) 에너지스타 규정 충족

최대용량 HDD기종 250MB, 최대 340MB 내장

전원을 넣으면 작업화면이 바로 또는 PRE-INSTALL 기능

인간을 소중히 환경을 소중히

기술의 힘으로 세계의 거두는 SAMSUNG 삼성전자

●PMS 기술용 적용한 초정전, 유해배 방지 실현  
●재활용 가능 포장박스 및 종이류인 사용  
●독수 센서를 통한 저소음 실현

●엔드윈 오버드라이브 소켓 장착  
●스카시 II (SCSI) 포트 장착  
●7개의 확장 Slot 및 5개의 Bay 제공

●VESA 규격의 모니터 및 윈도우 가속기 탑재  
●고해상도 유폴라 VGA 모드 내장 (기본 1MB)  
●250MB 및 340MB의 대용량 HDD 내장

●출력장 2.0도 윈도우 S/W 7종 내장  
●메모리, HDD 확장시 자동탐색기능 내장  
●컴퓨터 활용을 돕는 교육, 정보, 상담, A/S의 완벽한 지원

●내선 (02) 334-0595  
●내선 (02) 742-1215  
●내선 (02) 633-5781  
●내선 (02) 634-1821  
●내선 (02) 518-0105

●내선 (02) 334-0595  
●내선 (02) 742-1215  
●내선 (02) 633-5781  
●내선 (02) 634-1821  
●내선 (02) 518-0105

●내선 (02) 334-0595  
●내선 (02) 742-1215  
●내선 (02) 633-5781  
●내선 (02) 634-1821  
●내선 (02) 518-0105

# 내년 등록금 15%선 인상 예상돼

## 신학기 개강 이전 논의구조 마련해 마찰 예방해야

내년도 등록금 인상이 15%내에서 될 것으로 보여 여전히 대학 재정증 등록금 의존율은 8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사립대학총학협회(회장=민병철·본교 총장)는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94학년도 등록금정책에서 최고 15%까지 인상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일부 총학장들은 18%

인상안을 주창했으나 교육부측에서 10%선의 인상안을 권고해 절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본교 인상율도 이번 총회결정안을 토대로 15%선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15%로 인상이 결정될 경우 본교는 인문·사회 계열이 1백30만원, 이학·체육 계열이 1백50만원, 공학·예능계열이 1백70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15% 인상률의 근거로 참가자들은 물가인상, 자연상승분과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않은 국고보조금 확충등을 주요인으로 들고 있다.

또한 이날 참가자들은 명목표인 기성회비를 수업료 내역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경주에서 열린 전국사립대총학협회 회의에서는 등록금 인상률 20%선에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실무자와 정책책임자간의 인상을 대한 견해차이가 나타나거나 정확한 근거없는 인상을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92학년도 대학등록금 책정결과 분석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대학행정실무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등록금관련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없이 이리수로 책정하거나 타대학의 기준을 도용하는 선에서 결정해 온 것으로 밝히고 있다.

3일간 경주에서 열린 전국사립대총학협회 회의에서는 등록금 인상률 20%선에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실무자와 정책책임자간의 인상을 대한 견해차이가 나타나거나 정확한 근거없는 인상을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92학년도 대학등록금 책정결과 분석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대학행정실무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등록금관련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없이 이리수로 책정하거나 타대학의 기준을 도용하는 선에서 결정해 온 것으로 밝히고 있다.

본교의 경우 지난해 예산안과 추가예산으로 가예산을 추정해 등록금인상을 폭을 결정하는데 근거로 이용하고 있어 세부적인 예산안 공개와 공공기관의 물가인상률분석이용등 구성원들이 공감할만한 인상근거자료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타대의 경우 학교측이 제시한 인상률을 근거로 구성원들이 토론하는 공청회자리를 열어 최종결정하는등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속에 등록금인상률을 결정해 매년초 반복되는 등록금투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어 이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학내여론이 높다.

등록금정책이 자율화된 이후로 등록금납부와 인상의 합리적 근거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학생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했던 선례에 비하면 대학당국의 신학년도 시작이전의 논의구조 마련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학교법인의 소유권자로서 이해해야 할 최소한의 관리운영비용의 전담에 대한 책임있는 법인 스스로의 전담공과와 확대방안도 등록금정책시기에 공개해야 하며 공청회의 형식이 도입된다면 이의 참여의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지적이다.

(박우호 기자)

본교의 경우 지난해 예산안과 추가예산으로 가예산을 추정해 등록금인상을 폭을 결정하는데 근거로 이용하고 있어 세부적인 예산안 공개와 공공기관의 물가인상률분석이용등 구성원들이 공감할만한 인상근거자료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타대의 경우 학교측이 제시한 인상률을 근거로 구성원들이 토론하는 공청회자리를 열어 최종결정하는등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속에 등록금인상률을 결정해 매년초 반복되는 등록금투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어 이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학내여론이 높다.

등록금정책이 자율화된 이후로 등록금납부와 인상의 합리적 근거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학생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했던 선례에 비하면 대학당국의 신학년도 시작이전의 논의구조 마련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학교법인의 소유권자로서 이해해야 할 최소한의 관리운영비용의 전담에 대한 책임있는 법인 스스로의 전담공과와 확대방안도 등록금정책시기에 공개해야 하며 공청회의 형식이 도입된다면 이의 참여의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지적이다.

(박우호 기자)

## 경주 학생자치 기구 선거 마무리 대부분 단독후보로 조용히 치뤄져

의과대학을 제외한 경주캠퍼스 각 단과대 학생회선거와 학생자치기구 선거가 지난 10일 마무리됐다.

제1대 불교문화대 학생회선거는 단독후보인 박지민(불교)·이승연(불교)·조기 총 유권자 3백49명중 2백14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백85표, 반대 164표, 무효 2표로 당선됐다.

제2대 인문대 학생회선거는 단독후보인 오정기(철4)·송인호(영문3)·조기 총 유권자 1천9백30명중 8백83명이 투표해 찬성 7백76표, 반대 82표, 무효 25표로 당선됐다.

제7대 자연과학대 학생회선거는 기호1번 이상용(화학3)·정

27표, 무효 2표로 당선됐다.

제6대 인문대 학생회선거는 단독후보인 오정기(철4)·송인호(영문3)·조기 총 유권자 1천9백30명중 8백83명이 투표해 찬성 7백76표, 반대 82표, 무효 25표로 당선됐다.

제7대 자연과학대 학생회선거는 기호1번 이상용(화학3)·정

상연(전선3)·조기 근소한 표차이로 당선됐다.

총 유권자 1천6명중 9백80명이 투표에 참가해 기호1번 4백84표, 기호2번 박기원(생물3)·서원복(조경3)·조기 4백79표, 무효 16표, 오차 1표의 다수표차로 기호1번이 당선됐다.

제8대 법정대 학생회선거는 단독후보인 차승열(법3)·박희정(행정3)·조기 총 유권자 4백80명중 3백41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2백74표, 반대 51표, 무효 16표로 당선됐다.

제6대 상경대학생회 선거는 총 유권자 1천3백33명중 7백67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6백12표, 반대 1백41표, 무효 14표로 단독후보인 김준현(경영3)·김성기(경제3)·조기 당선됐다.

제5대 졸업준비위원회 선거는 기호1번 조일환(무역3)·김은주(사복3)·조기 당선됐다.

총 유권자 1천5백80명중 1천45명이 투표에 참가해 기호1번 4백99표, 기호2번 김윤수(법3)·손부일(수호3)·조기 2백77표, 기호3번 김철수(어간경영3)·임준규(영문3)·조기 3백9표, 무효 10표로 기호1번이 당선됐다.

## 교내 소방시설 점검 화재 예방 대책 마련 시급

관리처는 그동안 관할 소방서에서 수차례 지적받았던 해화관과 원흥관의 소방시설보완공사를 시작했다. 이번이 하계되는 비상조경시설과 방화구획 시설 설치공사는 화재발생을 막고 불길의 번짐을 막을 수 있으나 화재 예방만으로는 부족하다.

각별한 불조심에 강조되는 요즘 본교의 소방시설은 어떠한지 점검해 본다.

학생회관은 91년도에 화재가 발생했기때문인지 소방시설이 비교적 완벽하며 관리되는데 화재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소화기와 소화전의 사용방법등을 친절히 설명하는 반면 몇몇 건물은 관리직원은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가장 소방시설이 미흡한 곳은 계산고시학사로 한 학생은 "소화기가 찾아볼 수 없다"며 "낮에는 전열기를 사용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배선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체육관에 들어서면 3군데의 소화전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중 화재시 누르도록 되어있는 비상버튼이 2군데나 망가져 있었고 제조일이 88, 90년이라고 적힌 소화기 2개도 누스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또한 교내에서 소방시설이 가장 완벽하게 갖춰져야 할 중앙도서관 눈에 띄는 곳에 소화기가 놓여 있던 하지만 대개 88, 91년에 설치된 것으로 점검

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고 비상시를 대비하는 물품보관용인 구조대함과 소화전은 장갑, 신발, 소화기등 누군까지 창고로 이동 하고 있었다. 열람실안의 분전반도 항상 열려 있어 주의할 요하는 등 허술한 상태이다.

소화기 점검에 붙어있는 스티커에는 기능점검 년도, 외관 점검 월1회를 명시해 놓고있고 평상시소방시설의 한 관계자는 "소화기 내부의 분말이 굳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소한 월1회씩의 점검을 해야하는데 그나마 몇몇군데 부족한 점검표에는 7월까지만 확인싸인이 되어 있었다.

한편 박물관의 한 연구원은 "화재시 현소화기로 불을 끄는데 유물에 입히는 손상은 심각하다"며 "기스가 분출되는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유물이 보존된 박물관에는 특별한 소방시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도서관 4층 한 열람실의 분이 말하지 않더라도 소화기로 방화봉은 것은 단지 옷을 수만은 없는 사실이다. 외관상, 형식상 놓여져는 소화기는 정작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불조심강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하고 완벽한 예방조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김소영 기자)

운기수(국문학·석사4학기)·이경연(사회학·석사2학기)·조기 단독후보인 제10대 대학원 학생회 정·부학생회장선출을 위한 투표가 어제(16일)부터 교수회, 동국관, 원흥관 앞에서 실시됐다.

진보적 학문공동체! 동국 발전의 주체로!란 구호를 걸고 단독후보인 윤·이 조의 주요 공약을 보면 △대학원생 자치 조직 강화를 위해 운영위·집행부 강화와 원우 동문의 건설을 위한 기초 작업 △학술 연구 활동 강화로 동원 논점 활성화 및 지원 확대와 어학강좌 개설 및 지원등이다.

또한 대학원 발전 방안에 따른 공약 사항으로 출판부를 통한 대학원 연구성과와 외부투로

## 교사임용제도 개선 토론회 교직이수제 폐지등 논의

올바른 교사양성 및 임용제도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가 전국 국립 사립대학 학생연합(이하 전사련)과 서울지역 사립대학 학생대표자 협의회(이하 서사협)의 공동주최로 지난 12일 서울대 4동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대토론회는 전사련과 서사협한 "올바른 교사양성 및 임용제도"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분위의 2차 민주적 임용안의 주제로 시작되어 경복대 김인남교수, 경상대 김수영교수, 성균관대 김진중교수와 민주당 김원웅의원의 토론이 있었다.

공동 연구위원의 성관인 민주적 임용안은 △교육과정 개

편과 학제변경 △중등학교 연계성 강화를 위한 과목합 △교과과정 이수제도의 폐지와 교육대학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수여제도 폐지 △평가기능제를 통한 사립사립대 정인축소 △국가자격제도 △사립중등학교 임용통로 공식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약 1천2백여명이 모인 이번 대토론회에서 4인의 토론후 활발한 질의와 응답시간을 가졌다.

## 대학원 학생회 18일까지 투표

형성, 전우 강의를 마린 및 전일 강사제도 추진, 강사 대기실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번 투표는 오는 18일까지 실시된다.

"새로운 현실..." 토론회 전국불교교원동맹은 83년도 논의된 '새로운 현실과 한국불교의 진로'를 오는 20일 동국관(L301)에서 개최한다.

이날 있을 토론회의 발제자는 "새로운 현실과 한국불교개혁의 방도를 발표할 지선(전불교 상인회장), '새로운 현실과 한국불교의 대사회적 실천방향'을 발표할 박세일(서울대 법대)교수이며 본교 토론참석자는 전혜주(불교학)교수이다.

형성, 전우 강의를 마린 및 전일 강사제도 추진, 강사 대기실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번 투표는 오는 18일까지 실시된다.

"새로운 현실..." 토론회 전국불교교원동맹은 83년도 논의된 '새로운 현실과 한국불교의 진로'를 오는 20일 동국관(L301)에서 개최한다.

이날 있을 토론회의 발제자는 "새로운 현실과 한국불교개혁의 방도를 발표할 지선(전불교 상인회장), '새로운 현실과 한국불교의 대사회적 실천방향'을 발표할 박세일(서울대 법대)교수이며 본교 토론참석자는 전혜주(불교학)교수이다.

형성, 전우 강의를 마린 및 전일 강사제도 추진, 강사 대기실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번 투표는 오는 18일까지 실시된다.

"새로운 현실..." 토론회 전국불교교원동맹은 83년도 논의된 '새로운 현실과 한국불교의 진로'를 오는 20일 동국관(L301)에서 개최한다.

이날 있을 토론회의 발제자는 "새로운 현실과 한국불교개혁의 방도를 발표할 지선(전불교 상인회장), '새로운 현실과 한국불교의 대사회적 실천방향'을 발표할 박세일(서울대 법대)교수이며 본교 토론참석자는 전혜주(불교학)교수이다.

## 제26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 박현식(전기4)군을 만나

제26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박현식(전기4)군을 만나 당선소감과 이후 학생회 운영방안, 공약사항의 실천방안 등에 대해 간략하게 들어본다.

— 제26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소감은

— 우선 지지해주신 학우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제26대 총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정확한 평가였다 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기쁘다는 생각보다는 할일이 많다는 부담이 앞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학우들과 함께 끝내 학생들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 공약사항중 가장 먼저 제 기했던 교육개혁, 특히 교육재정 GNP대비 5%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 김영삼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정권에 대한 압력을 통해 강제해 낼것입니다.

타대학에서 온 한 산발적인 투쟁을 진행시켰으나 내년도 부터는 전국적 조직을 건

설해 사립학교법 개정과 함께 이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 중단개혁의 구체적 실천 계획은

— 중단내의 진보적 세력들과 연대의 틀을 갖추고 전통사찰보존법등 불교 관계악법철폐해 중단개혁이라는 근본적 대안에 구체적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 학생복지위원회 문제의 해결방안은

— 이번 선거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제26대 총학생회 준비위원회에서 학생복지위원회의 인수를위원회로 구성하고 현직행부 퇴진투쟁을 벌여낼 것입니다. 또한 인수위원회에서 위원장 직선제, 감사, 수익사업관리등 모든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선출을 위한 선거의 시기는 내년3월이후가 될것이고 이때까지 대체인구인 인수위원회에서 학생복지위원회의 사무를 관리



하는 한편 회칙 개정이나 단과대 복지위원회건설도 병행할 것입니다.

— 이와함께 현재 학생복지위원회의 수익사업은 공동관리위원회나 생활협동조합의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논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검증과정을 진행시키겠습니다.

— 앞으로의 각오는

— 부끄럽지 않은 1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 대중적인 선거평가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학생회의 전망을 고민하겠습니다.

학생회의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대폭적인 질적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분산돼 있는 학우들의 의견을 끌어 안기 위해 반드시 학생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이석중 기자)

## 제11대 경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이종섭(야간법4)군을 만나

10명과 운영위원중에서 총학생회장이 지명하는 10명, 총학생회장과 총대의원의장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0월 27일 구성단계를 마치고 지난 1일부터 선거일인 25일까지 차기 총학생회 구성을 위한 선거업무의 총괄 및 공청선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제11대 중선위의 기본인정은

— 이전 학생회 선거의 적잖은 부분들이 열산, 지연, 학연으로 얼룩졌으며 내실보다는 보여주기식 선거로 전락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제11대 중선위는 정책대안을 기본전제로 삼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모델로 학생회의 신

뢰도를 높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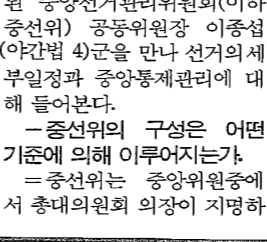
— 과열, 혼탁선거에 대한 방지책은

— 선전물의 규제 및 선거행위 금지요강의 철저한 강화를 수 있다. 첫째 학내 미관을 고려 선전물의 육내 부착을 금지시켰다. 둘째 선전물의 규격과 부수도 대폭 제한했으며 중선위가 권인적임 및 부화장소의 선정까지 수행할 것이다.

— 일반 학우들의 선거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 지극히 시대의 변화에 민감한 때라 순수하고 투명한 선거방식만이 후보자와 학생회의 신뢰도를 강화시키고 학우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리라 본다.

(전현철 기자)



94학년도 학생회를 이끌어 나갈 제11대 총학생회 선거가 오는 25일 치뤄진다. 지난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후보자등록 기간으로 정하고 공정한 선거진행과 관리를 위해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 공동위원장 이종섭(야간법4)군을 만나 선거의 세부일정과 중앙선거관리에 대해 들어본다.

— 중선위의 구성은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 중선위는 중앙위원중에서 총대의원의 의장이 지명하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산업사회의 창조

GS 金星産電

“미래 자동화사회를 여는 가장 앞선 기술”

● 서비스설비분야 ● 전자·전자분야 ● 산업자동화분야 ● 환경·에너지분야

금성산전은 종합 산업 전기·전자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자동화사회를 앞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전자 분야의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금성산전은 산업 전문분야에 걸친 종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첨단 자동화사회를 앞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 산업자동화분야 ● 로보트, PLC, CNC, 인버터 ● 물류자동화시스템 ● 공장 및 빌딩 자동화시스템 ● 교통관제시스템 ● 전력제어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 서비스설비분야 ●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주차설비 ● 지체제 ● 차량관리기기 ● 자판기 ● 전동공구 등

● 전기·전자분야 ● 초고압설비 ● 배전설비 ● 고압기기 ● 변전설비 ● 제어계측기기 ● 광반도체 등

● 환경·에너지분야 ● 상하수처리시스템 ● 전기발전기 ● 저위전설계시스템 등 각종 공해방지설비 ● 태양발전시스템 ● 열병합발전시스템 ● 태양열수리기 ● 축열기 등 대체 에너지기기

GS 金星産電 部門 ● 金星産電 ● 金星計電 ● 金星機電 ● 金星아니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여의금성 트윈타워) 대표전화 (02) 787-1114

# 여성, 권력대안 준비해나카야

## "치열하게 사는 것이 글 잘쓰는 비결"

작가와와의 만남 - 공지영

"작품으로 전해야 할 메시지를 한 마디 말로 축약해서 전달하고 싶지 않다"며 포포잡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밝힌 작가 공지영과 만난 장소가 지난 10일 홍익대에서 있었다.

"공지영과 함께하는 길잡이라는 주제로 약속된 시간보다 2시간 남짓 더 진행된 '대학의 포포잡기'는 '소설이라는 중간매체를 사이에 두고 작가와 독자가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작품으로 하반기에 여성문제를 다룬 여성작가의 대명사로 대두된 공지영은 자신을 여성심리학의 연구자로서 보는 사람이 있어 부담스럽지만 하다고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서술된 '무소의 뿔...' 발표 후 또 잡지사와의 인터뷰에 응했던 공지영은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의 병목으로 잡지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소송에 대한 물음에 공지영은 여



◇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발표 후 여성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작가로 대두된 공지영(왼쪽)과 함께한 포포잡기.

성작가들을 상대로 한 왜곡 보도-소설속의 여주인공과 작가의 이혼 과정이 일치한다는 때문에 적지 않은 작가들이 피해를 입고있지만 거론이 되면 더 큰 피해만 입을거라며 기사내용이 독자들의 뇌리에서 사라져 가기를 바라는 여성들을 보고 '왜 잡아야만 하나라는 스스로

이혼을 하나의 선택이 아닌 결혼의 연장선이라고 역설한다. "이혼후의 여성이 훨씬더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지만 해서 시원한 것도 아니고 상황의 마지막도 아니예요" 공공연히 떠들고 싶진 않지만 자신도 이혼을 했고 이혼은 단지 사람에게 작은 흠집일뿐이라고 생각한다

작가가 결혼이나 이혼에 대해 젊은세대들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생각은 그것에 대한 자기만의 가치관을 개방적으로 가지길 바란다

남다르게 가진 작가의 또하나의 개념은 모성인데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역할은 어머니쪽이 어울린다는 통념이 잘못임을 지적한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모성이 아니라 사랑인데 오랫동안 사랑을 주는 사람이 어머니였을뿐"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모성은 인간만이 가진

승고한 것이지만 여성의 삶을 희생하는 모성발휘는 또다른 여성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바탕을 이루고 있어 서인지 '무소의 뿔...'은 대안없는 비판이 존재한다는 평도 듣고있다. 이에 대해 작가는 "소설가는 현실을 제시할 수 있을뿐 대안 마련은 독자의 몫"이라며 포포잡기자들을 가리키기도 했다.

"여성문제가 단지 매 맞는 아내, 자식기르기과 직장생활을 함께하기 힘든 현대여성, 여성의 사회진출이 힘든 현실만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기관까지 만들수 있는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작가 공지영은 자신의 글이 너무나 대중화되면 같이 떨어질수 있다는 독자의 염려에 고마워하고 '길 좋은 대중성을 지향하며 글을 쓰겠다는 뜻을 보였다."

"천개의 눈을 가진다면 살때도 하나만은 뜨고있는 그리스 신화의 괴물처럼 그런 눈을 가진다면 내가 쓰고 싶은 글은 언제라도 쓸수 있을것"이라는 작가는 "입으로 뱉어내지 않으면 참을수 없었던 치열하게 사는것이 글 잘쓰는 비결"이라며 맑은 웃음을 지었다. (이유리 기자)

### 영화의 패러독스

#### ◇ 복합미디어시대의 영화정책 영화이용 무한이윤 추구 외화선호, 영상문화 위기불러



한국영화가 최근 않고 있는 국산 영화의무상영계의 축소진행과 외화 프랜차이즈 제한 폐지, 교호상영제(외화 다음엔 반드시 국산영화를 번갈아 상영하는제도)의 폐지등의 조치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영화계의 일이 다른 영역에까지 파급된다는 예상을 하지 못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계의 문제는 사실 영화계 안에서만 소화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화가 어디까지 와있는가를 따져 봐야 한다. 1865년 영화가 탄생한 의미는 과학과 자본의 어느 장점에서 출발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학적으로 영화 메카니즘은 광학시대의 총아로 등장한 문화 활동이다. 또한 영화는 자본주의의 이윤추구 동기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부딪치면서 상업적으로 성장해왔다.

이제 영화는 탄생한 지 백주년 이 되어간다. 그 사이 영화의 메카니즘과 이데올로기의 속성을 처음과는 상당히 달라진 상황에서 전개되어간다. 과학은 광학의 시대에서 이미 전자, 레이저, 컴퓨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차이를 단순한 오락의 수준이던 문화활동으로까지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획기적으로 발명품들, 예를 들어 고화질TV(HDTV)의 등장과 레이저 디스크, 컴퓨터 영상,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의 대중화는 영화의 과학적 메카니즘이 대체된다는 전망을 쉽게 하게 만든다. 이미 부분적으로 영화 메카니즘은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영화가 테이싱 필름과 영상기와 극장배급의 테이싱에서 머물지 않고, 극장 뿐 아니라 케이블이나 위성에 의해 안방에서 TV드라마를 보듯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91년전에도 비디오라는 매체가 대중화되면서 영화가

정재형 (예술대연영과 교수·영화 평론가)

### 지상 본 생

"잘못 살려낸 우리말"이란 제목으로 "그릇된 조어로 거베말이 혼란"하다는 선생님의 글(동대 신문 1133호, 1993. 10.13)을 잘 보았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우리말을 바로잡기 위해 애써 오신 선생님께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제가 선생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 보려 합니다.

머거리:모달 "식물을 쓰지 않던 벽을 거러" 벽이 쓸려 쓰인다. 우리 말법에 어긋나고, 어느 곳에서도 쓰이지 않았고, 억지로 만들어낸 말인 벽거리라는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퍼뜨리고서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말입니다.

"무소 모인의 회원을 모방"이라고 하는 것도 잘 웃기는 말입니다. 모인사람에서 '모'와 '방'을 따서 만들었다니 잘 어가 없습니다.

먼저 벽거리가 과연 우리 말법에 어긋나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매우 어색해 보이나 세나라 시기에 이렇게 융적사그림의 출기가 그대로 이질서처럼 쓰였다고 우리말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 옛날 뿐만 아니라 '말소리', '비비송', '목발' 등을 보십시오. 참 좋은 말입니다. '벽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하나 앞으로 더욱 많이 쓰이게 된다면 표준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버리고 어떤 말만 써야 한다고 우긴다면 문제가 있었지만 '벽거리'가 살아남기 위해 '음식'과 다를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말의 혼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비행기를 '날뿔'로 쓴다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의 생각을 물려받은 것이라 봅니다. 말은 본래 사람이 만드는 것이며 만들어진 말이 아닌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들어 놓고 널리 쓰이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하나 어떤 것은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이를 자연스

### '우리말 바로쓰기'

런 사회 현상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외래말도 그것이 처음 생겨난 곳에서는 새로 만든 말인데도 우리만 이렇게 새 말을 만드는데 저항이 심한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른바 언어의 사회성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가 말을 익히고 쓰는 과정은 개인이 사회관습에 그냥 따라가거나 본뜨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현실을 담아내는 창조적 과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장

말과 글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될 것이고, 언어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말이란 '말과 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될 것이다." 이 말에 저는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쓰기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왜 이런 상황이 생겨났는가를 들여다 보았으면 합니다. 말다듬기를 할 때, 토박이말은 어색하고 비속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라는 말도 그런 경우인데 '시집 살이' '타향 살이' '버승 살이' '옥 살이'와 같이 겨우 목숨이 붙어있는 것을 '살이'라 하고 '목과 생활' 언어 생활에서 생활은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삶을 뜻한다

다. 저도 길잡이 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유는 선생님의 '가운뎃길'은 '갯길'과 대비되어서 갈래 또는 두 갈래의 길처럼 나타납니다. '한길' '둘길' '삼길' '일림' 같은 길의 종류를 가리키는 '길바닥', '길터'는 길의 공간적인 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보면 '갯길'은 '노경'을 가름할 말이 되지 못합니다. 또 '갯길'도 길인데 왜 갈 수 없는가? 이것은 길의 개념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

### 우리말 조어법 좀더 잡을 필요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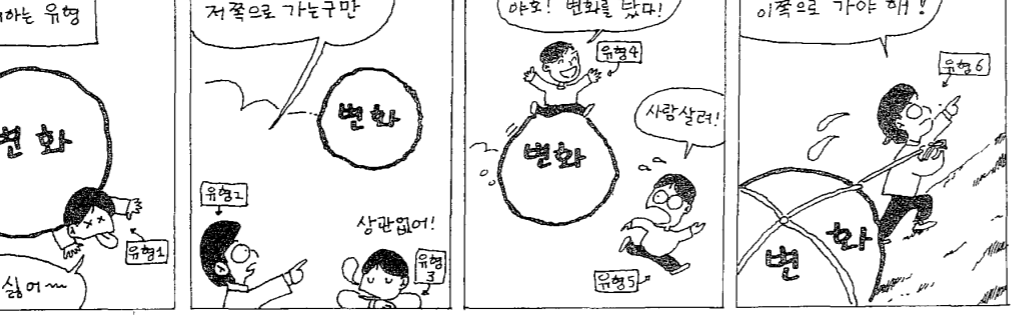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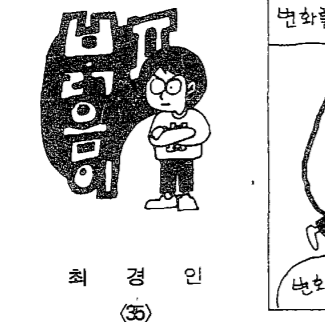
### 머거리-갯길 등 새말만들기는 발전과정

조어 과정이 없을 때 우리말은 점점 더 쇠퇴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한자말이나 미국말은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누구하나 시비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말을 새로 만들면 '국어학자들'까지 큰 일이나 나 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니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새말 만들기가-한자로 새말 만들기는 그렇지 않은데-무척 낯설어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한번도 우리말을 아끼고 가꾸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루빨리 버려야 할 불행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방'이란 말에도 거부감을 느낄 까닭은 없습니다. 우리말의 조어법을 자주 좀더 잡는 것은 우리말의 자연스런 발전을 가로 막을 뿐입니다.

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 쓰기의 차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래 문화의 압력에 눌리어 우리말의 뜻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해 주그러들은 결과입니다. 지금으로서의 조금 설익은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 더욱 널리 써서 토박이말에 있는 이런 부정적 의미를 빨리 씻어 내야 합니다. 언어, 특히 어휘는 많은 역사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며 낱말의 뜻을 지니고 고정된 것으로 여기는 생각은 말다듬기 그 자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다. 그러나 이는 잘못입니다. 멀리 지 않는 문이란 표현이 모순적이지요 아닙니다. 문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멀리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의 모양을 하고 있고 문이 열릴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갯길'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 공간이 동일한 곳에서 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규범으로 감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 아무 모순도 없습니다. 국어 연구원에서도 '갯길'이란 말을 생각해 보았으나 작은 길의 폭이 나있는 가장자리를 뜻하기가 고수도로의 '갯길'과는 너무나 큰 의미 차이가 생기기에 새말을 만들었고 합니다(월간 조선 1992. 1) 그들에게는 '갯길'은 풀이 나 있다는 명제는 분별적인 셈입니다. 우리말의 뜻을 이렇게 제멋대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갯길'이란 길의 한 부분이며 거기에 용역이 패어 있던 풀이 나 있던 우연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쪽에서 '갯길'이라는 말로 가리키는 것을 북쪽에서는 말

김영환 (부산공대대 인문사회학과 교수)



부르짖으면 배우가 어쩔고 하며 한국인의 국민성을 들춰낸다. 경제정의실천연합등 일부 시민단체들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그 역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데도 자기 일, 자기정당, 자기가정에서 벗어나 일을 하는 이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 괴짜시민

다. ▲얼마전 서울에서 실내장식회사를 경영하는 김삼(33)씨는 자기 1천여원을 털어 '김영삼'대통령 공약집 3만여부를 찍어내 지난 5월부터 지하철역 등에서 무료배부하고 있다. 김씨의 이런 발난 시민운동은 대선당시 유세장에 뛰구는 공약집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낀 데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김씨는 누가 대통령

## 양심수 군 문제의 해결은 군부독재 청산의 과제입니다.

5·6공 시절 군부독재의 폭압에 맞서 민주주의의 소중한 불씨를 자신의 온 몸으로 부둥키고자 했던 수많은 청년은 좁고 싸늘한 감옥살이를 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문민정부가 들어섰건만 여전히 과거 청산의 과제는 뒤로한 채 오히려 이러한 대학생 양심수들을 부당정직하려고 합니다. 양심수 군문제의 해결은 분명한 과거청산의 과제임을 문민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은 89년 이전의 시행령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89년 3월 6공화국 공안통치의 수장 역할을 하였던 공안합동수사본부에 의해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병역법 시행령 개악은 당연히 과거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안합동수부에 의해 89년도에 개악된 병역법 시행령은 이전의 시행령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대세에 역행하는 수구적 국방부는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개혁은 이미 시대의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심수 군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병무청과 야합하여 양군도 대상자들을 우선 순위로 징집하려는 국방부와 병무청은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문민정부는 양심수 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사나 몇번의 공식적 발언에서도 문민정부가 들어서기까지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뒤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선봉에서 감옥 생활까지 각오하며 투쟁한 젊은 대학생들의 청춘을 어떻게 되현할 수 있으며 오히려 부당정직을 하려고 하나? 이에 대해 문민정부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양군도 해결을 위한 탄원서 작성에 도움을 주신 총장님을 비롯한 30여분의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제25대 총학생회

양심수군 문제해결을 위한 동국대 모임